

찬양과 경배	찬양과 경배	
기 도	기 도	정영심 권사
성 경	성 경	출 17:8-16
말 씀	선교회 목장 가정모임	기다림의 훈련
설 교	설 교	류홍식 목사
목장모임	주기도문	다같이

찬양과 경배	다같이	찬양과 경배	다같이
말 씀	막 1:21~34	성 경	시 66편~ 막 1장
설 교	류홍식 목사	설 교	류홍식 목사
기 도 회	다같이	개인기도	다같이

다음주 기도 **주일** 낮 차경미 **오후** 정충규 **수요** 이순옥 **식당** 1조 **설거지** 인내목장

2월 **안내** 장봉일 신삼범 이육희 이춘아

헌금 주순남

1. 주님의 몸 된 교회가 분열과 다툼을 버리고, 사람이나 말의 지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안에서 한 마음으로 연합하게 하소서.
2.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높임 받게 하시고, 어떤 사람이나 형식도 드러나지 않게 하소서.
3. 질병 가운데 있는 환우들에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소서.

목양에세이

삶의 자리에서 다시 모이는 교회

교회는 예배당에 모일 때만이 아니라, 흩어져서도 서로를 기억하고 돌볼 때 더욱 교회다움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는 매월 마지막 주일 오후예배를 대신하여, 가정과 목장, 선교회별로 교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가정에서의 교제는 말씀이 삶으로 드러나는 첫 자리인 가정에서, 믿음의 대화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식탁에서 오가는 짧은 감사의 고백과 기도 한 마디가 자녀의 신앙을 세우고, 가정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목장에서의 교제는 혼자가 아닌 함께 걷는 신앙의 힘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서로의 형편을 듣고, 기쁨과 어려움을 나누며, 기도의 제목을 붙드는 가운데 우리는 신앙은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공동체의 여정’임을 배우게 됩니다. 말 한마디, 위로의 손길 하나가 한 사람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선교회에서의 교제는 같은 세대, 같은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 온 성도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격려 받는 귀한 시간입니다. 다양한 신앙의 경험과 삶의 지혜가 자연스럽게 나누어지고, 다음 세대를 향한 기도와 교회의 미래를 향한 마음이 하나로 모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쉼의 시간은 바쁘고 분주한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과 믿음을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전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지난 한 주를 정직하게 돌아보고, 지친 마음을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당을 나서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교회로 모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의 감격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과 목장과 선교회로 모이는 교제의 자리와 하나님 앞에 머무는 개인적인 쉼의 시간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새롭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일헌금] 143명

[십일조]

강춘심 강효덕 박승애 배상희 진강자 무명

[감사헌금]

김영배 김은빈 김효자 박덕자 이재은 이춘아 장윤자 장정섭 정충규 조용자 최근심 허문희 황금자 무명

[현당헌금]

강춘심 강효덕 김기현 김연희 김종덕 김 효 남재준 라성이 이수정 임승섭 최문정

[선교헌금]

강효덕 김기현 김연희 김 효 배상희 임승섭 최문정

[생일헌금] 왕도심 이승현

[차량헌금] 김순례 박소영

목 장	인도자	모임장소	참 석	성경공부	성경통독
사 랑	차경미	본 당	5	4	
회 락	이순옥	새가족실	8	3	
화 평	형명자	찬양대실	7	1	
인 내	장봉일	자 모 실	7	2	
자 비	이영숙	사 무 실	6	4	
총 성	이영희	노 아 실	6	1	
온 유	국동현	식 당	6	2	
절 제	한선영	본 당	6	2	

